

한국주거형태 변천과정에서 본 주거학의 생태학적  
개념정립\*  
제1부 부엌변천

Development of Housing Conceptual Framework  
through Changes in Korean Family Houses  
-Kitchen Lifespace( I )-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생활학과  
교 수 윤 복 자  
연구조교 최 형 선  
연구조교 이 선 미  
연구조교 이 수 진

Dept. of Housing & Interior Design  
College of Home Economics, Yonsei University  
*Professor* : Bokcha Yoon  
*Research Assistant* : Hyungsun Choi  
Sunmi Lee  
Soojin Lee

〈目 次〉

- |          |             |
|----------|-------------|
| I. 서 론   | IV. 결론 및 제언 |
| II. 문헌고찰 | 참고문헌        |
| III. 본 론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1) to investigate changes in house and kitchen forms and behaviors in the kitchen area of Korean family houses from the Yi-dynasty to the present, and (2) to develop a housing conceptual framework on the basis of the ecosystem approach through analysis of changes in Korean family houses. The documentary research method was used for this study.

The major findings were that the traditional Korean houses were composed of separate

\* 본 논문은 1989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buildings and had various floor levels with the maru(a wooden floor) as the center of the open plan. The introduction of foreign style house forms from the era of enlightenment, in the year 1876 to the Korean war in 1950 changed traditional Korean houses into Korean-western style houses. More recent increased population and urbanization accelerated to change from the traditional Korean house form to an apartment style. At the present time, however, many kinds of house forms, from a highly modernized style with convenient facilities to a primitive style, which cannot even meet the basis needs of daily life, coexist together.

The Kitchens in traditional Korean houses had no plumbing, drainage, or work centers. They had simple adobe furnaces which were used for cooking and for heating the ondol, a kind of panel heated floor by which the heat and smoke run under the floor to the chimney. This made the kitchen floor level lower than the floors of other spaces. The residents entered the kitchen through the madang(atrium). The influence of the western style kitche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and improvements of nation-wide economic status have made today's kitchen space convenient and hygienic. The floor level of the kitchen was raised to the same level of other spaces. Formerly the major function of the kitchen space was cooking and heating floors. This had changed, and the kitchen is now, the place for family and social interaction.

A housing conceptual framework was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se findings.

## I. 서론

인류는 수십세기를 살아오면서 자연과의 균형과 적응 뿐만 아니라 인간의 가치, 이미지, 지각, 생활양식 등을 주거형태에 표현해오고 있다. 따라서 주거형태는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문화적 환경에 의해 받는 영향이 기후, 재료, 공법에 의해 받는 영향보다 훨씬 크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Rapoport 1969).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거형태 및 생활공간의 변화는 한가지 요인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자연환경요인, 정치·경제·기술환경요인, 사회문화적 환경요인, 또 거주자의 사회심리적 환경 등 여러가지 요인의 상호작용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한편, 주거는 인간이 안주하기 위한 필수적인 공간이므로 주거의 본질적인 기능 중 하나인 식생활을 위한 부엌 또한 주거의 일부로서 이러한 제요인의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을 보다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태학적 개념모델이 필요하다.

근래에 들어 국제학계에서는 각 문화권에 따른 주거형태를 연구하여 주거학 개념의 틀을 형성하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단편적인 연구가 많으며 이 연구들을 종합한 주거학의

개념체계를 확립하는 시도는 많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주택유형과 이에 따른 부엌유형을 분류하고, 부엌을 중심으로 한 생활행태와의 변화를 파악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주거내 생활공간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가지 환경요인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주거학의 생태학적 개념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주거학의 생태학적 개념모델을 통해 부엌공간 뿐만 아니라 각 생활공간과 여러가지 환경요인과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주택과 부엌, 그리고 부엌과 관련된 생활행태의 변천을 파악한다.
- 2)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부엌의 유형을 분류한다.
- 3) 주거학의 생태학적 개념모델을 제시한다.

### 2. 용어정의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뜻을 다음과 같이 제한한

다.

1) 주택:주택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장소(정태일 1988)로서 사는 집, 살림집이란 뜻(박윤성 1987)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생활을 배제한 물리적인 구조체로 주택의 의미를 제한한다.

2) 주거:주거란 주생활, 나아가 가정생활이 영위되는 곳(조성기·김일진 1977)으로서, 물리적 환경과 가족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존재하는 사회-공간 시스템(조성희 1987)이며, 주택이라는 구조체에 생활이 포함되는 것을 의미한다.

3) 생태학적 접근방법:유기체들과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총체적인 접근방법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기체를 주택으로 보고 이를 둘러싼 환경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주거학의 개념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 3.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문헌연구방법 중 역사적 연구방법과 도서관 서베이방법을 이용한다. 이에 따른 연구진행절차로서, 먼저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시대적 구분의 근거를 찾아 주택과 부엌의 변천을 살펴보고 부엌의 유형을 분류하며 부엌을 중심으로 발생한 생활행태를 파악한다. 이를 통해 역사적 측면에서 주택 및 부엌형태의 변천과 생활행태의 변화를 정리하여 분석한다. 그 다음으로는 주거학의 생태학적 개념구조형성을 위해 주택과 부엌의 형태에 영향을 준 요인을 파악하고 이러한 여러가지 환경요인을 중심으로 주거학의 생태학적 개념모델을 제시한다.

### 4. 연구범위 및 한계점

본 연구가 문헌연구라는 점을 고려하여 연구범위를 연구대상에 대한 문헌이 비교적 많은 조선시대에서 현재까지로 제한한다. 그리고 개화기의 시점을 1876년 병자수호조약체결로 보고 조선시대, 개화기, 일제시대, 해방 후 1960년까지, 1960년대, 1970년대 및 1980년대로 나누어 연구대상을 고찰한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 연구방법과 도서관 서베이방법을 이용함에 있어 문헌의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확위는

문과 권위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문헌에 국한한다. 그러나 이 모든 연구는 2차적 자료이므로 1차적인 자료인 사료를 직접 파악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 II. 문헌고찰

본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본 장에서는 주택과 부엌의 변천을 다룬 문헌 및 주거학 개념을 생태학적 접근으로 다룬 문헌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본 연구내용의 기초적 틀을 세우고자 한다.

### 1. 주택변천

주택변천에서 주택의 분류기준으로는 평면형태, 계층, 시대, 건축형태, 기거양식 등이 선행연구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한편, 조선시대의 주택이 형성된 때는 유교사상과 더불어 음양오행설, 풍수지리설, 자연합일사상 등의 사상적인 요인과 함께 기후조건, 풍속 등의 요인이 영향을 미쳤으며, 개화기에 이르러서는 봉건주의가 붕괴되고외래양식이 도입되는 등의 사회변화가 주택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제시대동안에는 농촌인구의 도시유입에 따른 도시화 현상, 조선영단설립에 이은 표준형주택의 공급 등으로 인해 주택에 변화가 오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해방과 6·25사변 후에는 서구문물의 도입과 재료·공법의 발달이 주택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1960년 이후부터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실시로 인해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현대적인 아파트가 설립되는 등의 주택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조선시대의 주택에 관한 문헌으로는 주남철(1976, 1980), 오영숙(1977), 윤장섭(1979), 유희옥(1984), 이영주(1986), 강영환(1986), 이경희(1986), 김경원(1987) 등의 연구가 있었고, 김선우(1979), 유희옥(1984), 김철호(1984), 이영주(1986), 김선재(1987), 정태일(1988)의 연구에서는 개화기와 일제시대의 주택을 다루었다. 해방 후 1960년까지의 주택을 다룬 문헌으로는 신수현(1983), 유태운(1984), 장광화(1987), 정태일(1988) 등의 연구가 있으며, 1960년대의 주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최

찬환(1982), 신수현(1983), 이중우(1988), 정태일(1988) 등의 연구가 있었다. 그리고 1970년대와 1980년대의 주택을 다룬 문헌에는 윤덕호(1984), 김태현(1986), 신수현·주남철(1986), 이중우(1988), 전정윤(1989) 등의 연구가 있었다.

## 2. 부엌변천

부엌변천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부엌변천만을 따로 다룬 논문은 거의 없는 실정이며, 주로 농가주택을 고찰하면서 부엌의 현대화정도를 부엌의 구조 및 시설에 의한 인식화정도에 따라 유형화시킨 연구 내지 아파트평면을 분석하여 LD,<sup>1)</sup> DK,<sup>2)</sup> LDK,<sup>3)</sup> L+D+K<sup>4)</sup> 등으로 분류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농가주택 부엌의 현대화정도를 유형화시키는 연구는 농가주택 자체가 전통주택, 즉 민가의 요소를 많이 갖추고 있으면서 동시에 거주자의 욕구와 시설·설비의 발달에 힘입어 부분적인 개량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볼때, 전통주택의 부엌이 현대의 인식부엌으로 변화해온 과정을 부분적이거나 유추할 수 있게 하므로 본 문에서 다를 가치가 있다고 본다.

윤정옥의 연구(1981)에서는 전통적 주방공간 형성에 미친 요인을 추출해냈으며, 김종인·엄인섭(1982, 1983)의 연구에서는 표준설계도면의 농촌개량주택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한편 신수현(1983)은 부엌의 변화요인으로서 연료의 변화, 바닥고저차 및 취사용·난방용연료의 분리를 들었으며, 윤덕호의 연구(1984)에서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엌의 변천을 설명하였다. 최병숙의 연구(1988)에서는 농촌주택을 대상으로 식사 및 취사공간의 구성형태를 유형화하였으며, 유옥순의 연구(1988)에서는 한국농가주택의 변화요인을 거시적·미시적 요인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한편 이은경의 연구(1989)에서는 취사공간을

시설, 설비, 재료 및 구조를 기준으로 유형화하였다.

## 3. 주거학 개념

유기체들과 환경들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접근방식을 이용하여 주거학을 설명하려는 시도는 외국의 경우 1970년대에 그 활발한 움직임이 보이기 시작하여 많은 주거학책의 저술이 이루어졌다. 라포포트(Rapoport 1969)는 주거의 형태와 구성은 여러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았으며, 웨딘과 나이그렌(Wedin & Nygren 1979)은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에 주택의 산업화, 에너지, 택지, 주거비, 정부의 주택정책 및 주택법규를 포함시켜 설명하였다. 미이크스(Meeks 1980)는 주택과 환경과의 관계를 거시적 관점과 미시적 관점으로 나누어 고찰하였으며, 카이저(Keiser 1981)는 생물리적 환경, 사회심리적 환경 및 기술환경으로 이루어진 주거환경과 주택이 상호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디콘과 화이어바우(Deacon & Firebaugh, 1988)는 미시적 측면에 시간, 공간, 개인의 기호, 배경, 가치에 따라 달라지는 물리적인 측면의 주거와 가족, 친구, 이웃 및 가족의 생활주기, 연령, 사회경제적 위치, 그리고 문화적 배경등을 포함하는 사회적인 측면을 미시적인 환경에 속한다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생태학적 측면에서 주거학책을 저술한 예는 아직 없고 김자혜(1982), 나승문(1983), 김철호(1984), 유희옥(1984), 이영주(1986), 김선재(1987), 유옥순(1988)등 일부 연구논문에서 이를 사용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유형이나 부엌유형은 어느 한가지 요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변의 여러 환경요인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므로, 이러한 현상을 보다 총체적이며 상호작용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태학적 개념모델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주변의 환경요인은 선행연구를 종합한 결과 자연환경, 정치·경제·기술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개인 및 가족행태환경 등 4가지 환경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이들 4가지 환경요인 중 자연환경과 정치·경제·기술환경은 거시적인 측면으로, 나

\*1 LD:거실, 식당이 한 공간으로 개방된 형태

\*2 DK:식당, 부엌이 한 공간으로 개방된 형태

\*3 LDK:거실, 식당, 부엌이 한 공간으로 개방된 형태

\*4 L+D+K:거실, 식당, 부엌이 분리된 형태

머지 사회문화적 환경과 개인 및 가족행태환경은 미시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는데, 그 영향력은 미시적 일수록 일차적으로 작용한다.

### III. 본 론

본 장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를 7단계로 시대구분하여 주택과 부엌변천, 그리고 부엌과 관련된 생활행태의 변천을 파악하고 부엌의 유형을 분류한다. 그리고 주거학의 생태학적 개념모델을 정립하고자 한다.

#### 1. 주택과 부엌 그리고 부엌을 중심으로 한 생활행태의 변천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주택변천과 부엌변천 그리고 부엌과 관련된 생활행태의 변천을 7단계의 시대순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그런데 주택형태의 경우 사회계층에 따라 상이한 양상을 보이므로 이를 각 시대별로 중상층과 서민층으로 분리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1) 조선시대

조선시대의 주택특성은 목조가구식 단층구조로 온돌과 마루로 이루어져 있으며 엄격한 신분제도로 인해 계층에 따라 주택형태에 차이가 있었다. 중상류 주택은 당시 유교사상의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주택의 구성은 하나의 채(棟)를 단위로 분화되었고(주남철 1987), 궁궐건축의 영향으로 대청마루 중심의 평면이 보편화되었다(정인구 1974). 서민층 주택은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아 지역에 따라 상이한 평면형태를 보였으며, 주택구성에 있어서도 간(間)의 분화가 더욱 우세하여 안방, 마루, 건너방, 부엌으로 이루어졌다(주남철 1987).

조선시대 부엌의 특성은 중상층과 서민층 주택에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상층 주택의 부엌은 대문에서 멀리 떨어져 외부와는 폐쇄된 안방과 연결하여 위치하고 있으며 대가족 생활을 위한 취사작업에 적합하도록 넓은 면적을 할애하여 '함실' 또는 '한데부엌'<sup>\*)</sup>같은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부뚜막을 여러 곳에 설치하고 있었다. 또한 부엌 옆은 찬간으로서

여기에 식탁(그릇을 얹어 두는 장)을 두었으며, 찬간은 마루 혹은 온돌로 되어있어서 부엌이 기단 상면보다 낮은 것이 상례였다. 서민층 주택의 부엌은 채의 끝이나 중앙 혹은 모서리에 안방과 연결하여 위치하고 있었으며 안방쪽으로 부뚜막이 놓여졌고 부뚜막 반대편에 몇개의 선반이 매어져 있어 식기류가 없어졌다(주남철 1984). 부엌바닥은 중상층 부엌과 마찬가지로 흙으로 되어 있었으며 기단 상면보다 낮았다(윤정옥 1981).

부엌과 관련된 생활행태를 살펴보면, 중상류 주택의 부엌에서는 찬간에서 조리, 수납이 행해지고, 함실아궁이에서 물을 끓이거나 조리, 취사, 난방을 위한 행위등이 이루어졌다. 서민층 부엌에서는 취사, 난방, 조리, 수납을 위한 모든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제주도 지방이나 영세농가에서는 농번기때 부엌을 식사공간으로도 사용하였다.

##### 2) 개화기

개화기 주택의 특성은 중상층과 서민층이 서로 다르다. 중상층 주택은 조선후기의 실학사상과 갑오경장으로 인한 신분제도 철폐, 및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식사용, 접객용, 가족용 마루가 각각 분리된 한·양 절충식과, 복도, 다다미방, 욕실과 화장실이 실내에 설치된 한·일 절충식이 나타났다. 이때부터 대청이 독립된 마루방 혹은 복도로서의 기능을 하기 시작하였다(김철호 1984, 이영주 1986). 서민층 주택은 외래 주거문화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았으며, 주택의 실용성이 보다 강조되어 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안방뒤에 방이 생기는 곁방 형식이 도입되었다(정태일 1988).

개화기의 부엌특성으로, 중상층의 경우 한·양 절충식 주택은 부엌옆에 식사마루가 놓였으며 한·일 절충식 주택은 부엌옆에 찬방이 달려 있었다. 또한 중상층과 서민층 부엌 모두가 안방에 인접해서 위치하고 있었으며 부뚜막이 설치되었다. 부엌바닥은 흙으로 되었으며 기단 상면보다 낮았다(유희옥 1984).

부엌과 관련된 생활행태를 살펴보면, 중상층 주택

\*5 함실은 불아궁이, 한데부엌, 사랑부엌, 가마부엌이라고도 불리우는 것으로 난방을 위해 지은 아궁이 상부에 부뚜막을 지어서 솥을 걸은 곳이다.

중 한·일 절충식에서는 수납과 조리행위가 찬방에서 이루어졌고 식사마루에서 식사행위가 이루어짐에 따라 침식분리의 경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서민층 주택에서는 부엌에서 취사, 난방, 조리 수납행위등이 이루어졌다(유희옥 1984).

### 3) 일제시대

일제시대 주택의 특성은 재래한옥의 변화된 형태와 서민주택양식이 가미된 형태로 나타났다. 중상층 주택은 문화주택과 개량한옥이 대표적이었다. 문화주택은 재래주택에 외래주거양식을 가미하거나 전적으로 외래양식을 모방한 형태로서 식당, 욕실, 변소 등의 시설을 내부에 갖춘 집중식 구성을 하였으며 대청마루 중심의 평면이 거실중심으로 바뀌었다. 개량한옥은 재래한옥이 변천하는 하나의 과정으로서 안채에 수직되게 한쪽으로는 부엌과 건너방, 그리고 맞은 편으로는 대문간과 건너방이 확장되고, 창고와 변소가 설치되는 ㅂ자 구성을 하고 있었다(김선재 1987). 이에 반해 서민층 주택은 재래한옥의 기본특성에 큰 변화가 없이 부엌의 위치만이 변화였다.

그러나 근로자를 위한 영세집합주택인 독신료, 행랑형식주택, 2호연립주택, 소규모 영단주택등의 출현으로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서민층 주택이 나타났다. 이들 주택은 최소한의 공간에 각실이 분화되어 방, 마루, 부엌, 욕실들을 갖추고 있었다(장광화 1984, 이영주 1987).

일제시대 부엌의 특성은 중상층 부엌에서 더 큰 변화를 보였다. 즉 부엌에 찬마루가 설치되었고 특히 문화주택에서는 위생설비와 급배수설비가 되기 시작했다. 또한 장독대와 광도 부엌과 가까운 뒷뜰에 계획되었다(김선재 1987). 서민층의 경우는 부엌이 안방 후면에 배치되었으며, 부엌의 시설, 구조, 재료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부엌과 관련된 생활형태를 살펴보면 중상층의 경우 부엌내에 찬마루가 설치됨에 따라 조리, 수납등의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급배수시설의 도입으로 부엌내에서 물쓰는 취사행위가 자유로워져 가사노동의 동선이 짧아지기 시작하였다. 서민층의 경우에는 부엌내에서 여전히 취사, 난방, 조리등을 위한 행위가 이루어졌다.

### 4) 해방후부터 1960년까지

해방후부터 1960년까지의 주택특성은 중상층의 경우 건축가들에 의한 현상설계 주택들로 공간구성에 있어서 평면중앙에 거실이 위치하며, 현관, 욕실, 부엌이 실내에 설치되었다(이병옥 1988). 서민층 주택은 재래한옥이 변화된 형태와 집합주택형태가 공존하여 나타났다. 재래 한옥이 변화된 형태는 대부분 겹집구조로 되어 있으며, 해방직후 목조에서 흙벽돌조로 그리고 시멘트 블럭조로 변화되었다(신수현 1983). 공간구성은 거실이 평면중앙에 위치하고 부엌과 거실마루가 연결된 형태로 나타났다(김철호 1984). 집합주택은 전후 피난민을 위한 구조주택 및 난민주택, 연립주택, 소규모 아파트들이며 대부분 온돌과 마루구조에 거실, 부엌, 변소가 서로 인접하여 실내에 구성되었다(장광화 1984).

해방후부터 1960년까지 부엌의 특성을 살펴보면 이전시대와는 달리 부엌의 위치가 안방과의 연계성에서 벗어나 시설설비가 용이한 욕실, 변소등과 가까이 배치되었으며, 중상층 부엌의 경우 바닥높이가 거실과 같이 되었고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어 부엌의 입식화가 시도되었다. 서민층 재래한옥에서는 재래식 부뚜막이나 연탄아궁이가 부엌에 설치되었으며 바닥을 흙이나 시멘트로 마감하였고 방보다 낮게 처리되었다.

부엌과 관련된 생활형태를 살펴보면 중상층의 경우 부엌의 입식화가 시도됨에 따라 부엌에서는 취사, 조리행위가 이루어졌으며, 서민층의 경우 재래한옥과 집합주택의 부엌에서는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지 않고 이루어졌다.

### 5) 1960년대

1960년대의 주택특성은 중상층 주택중 단독주택의 특징으로는 온수난방방식의 집중난방으로 인한 자유로운 공간구성(김철호 1984), 거실, 식당, 부엌의 충분한 면적확보, 주공간의 내실화(신수현, 주남철 1984)등을 들 수 있다. 중상층 집합주택도 중앙난방방식의 도입으로 거주자의 입식생활이 유도된 것을 볼 수 있다(장광화 1987). 반면에 서민층 주택중 단독주택은 여전히 재래한옥의 기본특성을 지녀 화장실과 욕실이 대문간에 위치하고 안방전면에 부엌이 위치하고 있으며(이중우 1984), 개량된 재래한옥에서는 부엌과 욕실이 서로 인접하고 있다(김선재

1987). 서민층 아파트는 부엌의 입식화나 욕실설치가 미비하였으나 입식생활을 지향하는 서구적 공간 개념이 나타나 부엌과 욕실의 집중화 현상을 볼 수 있고, 연탄은돌, 혹은 연탄보일러의 개별난방방식이 채택되었다.

1960년대의 부엌특성은 중상층 단독주택의 경우, 취사와 난방을 담당하던 부엌의 기능이 DK, LK, LDK등으로 병합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으며(김선재 1987), 중상층 아파트에서도 취사와 난방이 분리됨에 따라 부엌의 바닥높이차가 없어지고 3LDK, 4LDK 형이 출현하였다(김영수 1984). 서민층 단독주택의 부엌은, 재래한옥이나 개량한옥의 경우 부엌과 안방이 인접한 K형을 보이고 있는 반면, 국민주택이나 시범주택에서는 LK형을 보이고 있다. 서민층 아파트에서도 LK형이 등장하면서(김선재 1987) 거실이 식사실의 기능을 하기도 하였다(배동석 1989).

부엌과 관련된 생활행태를 살펴보면 평면상으로는 부엌이 DK, LK, LDK형등 많은 변화를 보였으나 거실의 기능분화는 아직 미비하여 식사행위의 경우 중상층이나 서민층 모두 여름철에는 마루, 대부분은 안방(이병욱 1988)에서 이루어졌으며, 부엌에서는 주로 식사준비와 식사정리행위가 이루어졌다(이중우 1988).

#### 6) 1970년대

1970년대의 주택특성을 설명하면 중상층 주택중 단독주택의 특징으로는 공간사용의 총별분화 및 거실의 기능분화가 이루어진 것(이중우 1984)을 들 수 있고, 아파트의 특징으로는 중앙집중식 온수난방의 일반화로 거실중심의 서구식 주양식과 LDK형이 정착되어가는 것을 들 수 있다(윤덕호 1984). 서민층 주택중 단독주택의 특징으로는 주호면적의 증가로 방의 수가 증가하고 거실기능이 강화된 것을 들 수 있으며(이중우 1984) 아파트의 경우는 중앙난방 혹은 개별난방 방식이 도입되고 각 실이 분화된 것을 들 수 있다.

1970년대의 부엌특성을 살펴보면 중상층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에서는 난방방식의 발달과 설비의 현대화로 부엌이 입식화되고 개방되어 DK형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고(김태현 1986) 아파트의 경우도

중앙난방방식의 도입으로 난방과 취사가 완전히 분리되어 부엌이 입식화 되었으며 LDK형이 급증하였다(김영수 1984, 윤덕호 1984). 서민주택의 경우 단독주택의 부엌은 아직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지 못하고 연탄아궁이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상당부분 입식화가 이루어지고 거실과 연관성을 갖게 되었다. 아파트의 부엌도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고 부엌이 입식화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배동석 1989).

부엌과 관련된 생활행태를 살펴보면 중상층 주택의 경우 단독주택과 아파트 모두 취사와 난방이 분리됨으로써 부엌은 조리 및 취사를 전담하게 되었고, DK형 및 LDK형의 급증으로 식침분리가 유도되었다. 반면, 서민층 주택의 경우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모두 안방이나 마루에서 대부분 식사행위가 일어나는 것으로(배동석 1989) 나타났다.

#### 7) 1980년대

1980년대의 주택특성은 중상층 주택중 단독주택의 경우는 2층으로 분리된 단독세대의 임대차 공간이 의도적으로 구성되어 외부계단이 설치되는 다세대 주거양상을 나타냈으며(이중우 1988), 주택규모에 비해 실 수가 늘어났다(이경희 1987). 중상층 아파트의 경우는 평면유형이 다양화되고 각종 자재의 고급화 및 옵션(option)제도가 도입되는 특성을 보였으며(배동석, 1989), 서민층 아파트는 중앙난방방식의 정착으로 공간의 여유가 비교적 많아졌다(김선재 1987).

1980년대의 부엌특성은 중상층 주택중 단독주택의 부엌은 입식화가 보편화되었으며, 아파트는 기본계획이 식침분리를 원칙으로 이루어졌고, 공통적으로는 부엌가구의 시스템화 및 공업화, 취사기구의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DK, LK, LDK 양상을 보였다(윤덕호 1984). 서민주택중 아파트에서는 중앙난방 및 연탄개별보일러 방식이 정착되면서 DK, LK, LDK 유형이 많이 나타났다(배동석 1989).

부엌과 관련된 생활행태를 살펴보면, 중상층 단독주택의 경우 부엌바닥의 난방시설 확충으로 식사준비와 정리등의 행위가 부엌방이나 식당방에서 상당부분 행해지며 가족식사는 대부분 식당, 부엌에서 이루어졌고 격식을 요하는 손님은 안방에서 대부분 식사대접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중우 1988). 중상

〈표 1〉 주택과 부엌 그리고 부엌과 관련된 생활행태 변천

시대 구분	주택평면		주택특성	부엌 특성	부엌과 관련된 생활 행태
	중상층	서민층			
조선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돌과 마루구조</li> <li>· 대청중심의 평면</li> <li>· 중상층은 채를 단위로 분화</li> <li>· 서민층은 간을 단위로 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방 아래쪽에 위치</li> <li>· 흙바닥</li> <li>· 바닥차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사 난방 겸용</li> </ul>
개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상층은 대청이 독립된 마루방, 복도 기능으로 변화, 부엌옆에 식사마루 등장</li> <li>· 서민층은 곁방도 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바닥차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사 난방 겸용</li> </ul>
일제시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상층은 욕실과 부엌의 내실화, 대청마루에 유리 미닫이문 설치로 거실화</li> <li>· 서민층은 영세 집합주택의 출현, 최소한의 공간에 각실이 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상층은 급배수 설비</li> <li>· 서민층은 부엌이 안방의 후면에 위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취사 난방 겸용</li> </ul>
해방후 / 196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상층은 욕실과 부엌의 내실화, 평면중앙에 거실 배치</li> <li>· 서민층은 부엌과 마루가 연결 평면 중앙에 거실 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상층은 부엌의 바닥차가 없어지고 입식화 경향이 나타남</li> <li>· 서민층은 부엌의 바닥차가 있고 채래식 부뚜막 설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상층은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기 시작</li> <li>· 서민층은 취사와 난방 겸용</li> </ul>
196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상층은 생활공간의 내실화, 자유로운 공간구성</li> <li>· 서민층은 재래한옥의 기본특성을 지니는 경우와 부엌과 욕실의 집중화로 입식생활을 지향하는 서구적 공간 개념이 나타난 경우가 공존</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상층은 취사와 난방 분리 및 일부 식침분리</li> <li>· 서민층은 취사와 난방 겸용</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상층은 DK, LK, LDK형의 출현, 부엌의 입식화</li> <li>· 서민층은 부엌의 바닥차 있음</li> </ul>



시대 구분	주택평면		주택특성	부역 특성	부역과 관련된 생활 형태
	중상층	서민층			
197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상층은 공간사용의 총별분화와 각실의 기능 분화, 거실중심의 서구식 주양식 도입</li> <li>서민층은 거실중심의 실배치와 각실분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상층은 DK, L-DK형 급층, 부역의 입식화</li> <li>서민층은 부역의 입식화 시작</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상층은 취사와 난방의 분리 및 식침분리</li> <li>서민층은 취사와 난방 분리. 안방이나 마루에서 대부분 식사</li> </ul>
1980년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상층은 공간사용의 총별분화 및 다세대양상, 각종 자재의 고급화와 평면 유형의 다양화</li> <li>서민층은 거실중심의 실배치 및 부역과의 연계성 강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상층은 DK, LK, LDK형의 확산. 부역의 입식화</li> <li>서민층은 부역의 입식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상층은 취사난방 분리 및 식침분리의 보편화, 가족단란 및 접대 행위</li> <li>서민층은 취사난방분리. 식침분리의 확대</li> </ul>

층 아파트에서는 부역의 기능이 단순한 취사중심에서 온 가족의 생활공간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였다(윤덕호 1984). 서민층 단독주택의 경우는 식침분리가 완전히 일어나고 있지는 않으나 아파트는 식사실이 있어서 식침분리가 유도되고 있다(윤덕호 1984). 이상의 결과를 <표 1>과 같이 요약하여 정리한다.

## 2. 부역의 유형분류

부역공간을 유형화한 선행연구들(유옥순 1988, 박경옥 1988, 최병숙 1988, 이은경 1989)의 분류기준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부역의 설비 및 시설, 구조 및 재료, 평면상의 부역위치 등을 부역유형의 분류기준으로 하였다. 설비 및 시설측면은 물과 불의 사용을 중심으로 급배수의 설비여부, 취사와 난방겸용여부, 작업대상황, 부역의 자동화여부 등을 고려하였으며, 구조 및 재료측면은 아궁이존재여부, 바닥고저차, 바닥재료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류기준에 의해 부역유형을 <표 2>

와 같이 재래형, 개량형, 입식형, 현대형으로 분류한다.

재래형부역은 부역내에 급배수설비가 없으며 취사와 난방이 겸용되어 있고, 35~60cm정도로 낮은 부뚜막을 작업대로 사용하며 자동화시설이 전무한 상태이다. 그리고 난방과 취사를 겸한 아궁이가 부역내에 존재하고 바닥은 고저차가 나며 흙으로 되어있다. 부역은 내실화가 되어있지 않아 외부에 위치하며 마당을 통해 출입하게 된다.

개량형부역은 급배수설비가 되어있으며 재래식 부뚜막이나 시멘트몰탈로 된 입식작업대가 설치되어있다. 대부분 취사와 난방이 겸용되나 분리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아궁이가 부역내에 있어 재래형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바닥은 고저차가 나나 차이가 나지 않는 경우도 가끔 있으며, 주로 흙, 시멘트, 타일 등으로 마감되어 있다. 부역은 대부분 내실화가 되어있지 않아서 마당을 통해 출입하며 실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마당 외에도 실내와 통하는 입구가 있다.

〈표 2〉 부엌의 유형분류

분류기준 유형	설비 및 시설				구조 및 재료			부엌위치	
	급배수 설비	취사 난방	작업대상황	시스템화 <sup>1)</sup>	아궁이	바닥 고저차	바닥 재료	내실화 여부	출입구 위치
재래형	없다	겸용	부뚜막 (35~60cm)	되어있지 않다	있다	있다	흙	되어있지 않다	마당
개량형	있다	겸용 분리	부뚜막 규격화되지않은 시멘틀타작업대	되어있지 않다	있다	있다 없다	흙 시멘트 타일	되어있지 않다 되어있다	마당 과안방
입식형	있다	분리	규격화된입식 작업대(80cm이상)	부분적으로 되어있다	없다	없다	목재 비닐류	되어있다	거실이나 식당
현대형	있다	분리	규격화된입식 작업대(80cm이상)	되어있다	없다	없다	비닐류	되어있다	거실이나 식당

1) 시스템화란 부엌내의 규격화된 입식작업대와 자동화된 부엌기구들이 작업능률의 효율화를 위하여 기능적으로 하나의 체계를 이루는 상태를 의미한다.

입식형부엌은 급배수설비가 되어있으며, 높이 80cm 이상의 규격화된 입식작업대가 설치되어 있고 취사와 난방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또한 싱크대,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과 같은 자동화된 부엌기구들이 다 소 설치되어 있어 준비대, 싱크대, 조리대, 가열대, 배선대의 설치가 완벽하지는 않으나 부분적으로 되어있다. 바닥은 고저차가 없으며 목재나 비닐류등이 깔려 있고 부엌이 내실화되어 있어서 거실이나 식당을 통해 출입하게 된다.

현대형부엌은 입식형이 더욱 발전된 형태로서 부엌내에서의 가사노동절감, 위생적인 시설,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냉장고(준비대), 싱크대, 조리대, 레인지오븐과 전자레인지(가열대), 배선대, 배기장치, 조명 등 부엌의 작업대, 가구, 시설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된 형태이다. 앞으로는 이 형태가 더욱 발전하여 식기세척기, 쓰레기분쇄기 등의 자동화시설이 점점 도입될 전망이다.

이러한 분류기준을 근거로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의 부엌유형의 변화추세를 보면 재래형은 조선시대부터 해방 후 1960년도까지 지속되어 오다가 점점 사라지는 경향을 보이며, 도시의 무허가주택이나 농촌의 재래주택에는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 개량형은 일본과 서양식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개화기에 상류주택의 부엌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여 1960년대까지 발전되어 왔으나 1970년대에는 입식화추세에 밀려 점차 사라져갔다. 따라서 1980년대와 현재에 이

르러서는 도시 저소득층이나 농촌주택에만 존재하고 있다. 한편 입식형은 일제시대에 상류주택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나 대중화되지 못하다가 197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계속 보편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현대형부엌은 1970년대까지는 거의 없었으나 과학기술, 산업 및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소비자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로 1980년대에 이르러 도시 상류층의 소수 주택에서 시작되어 날로 증가추세에 있다.

시대별 부엌유형을 살펴보면 조선시대부터 1960년까지는 재래형이 대부분이었으며, 1960년대는 개량형전환기, 1970년대는 입식형전환기, 그리고 1980년대는 현대형도입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 현재에도 농어촌 산간지역과 사회경제적 위치에 따른 생활기회와 생활양식의 차이로 인해 위의 4가지 부엌유형이 시대의 변화와는 무관하게 공존하고 있다.

### 3. 주거학 개념모델

#### 1) 여러 주택형태에 대한 영향요인추출

주택과 부엌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그 분류기준을 물리적 특성, 시간적 특성, 기거양식적 특성 등 각 요인에 의해 단편적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과 부엌은 주변의 여러 환경과 상호작용을 하는 인간의 1차적인 생활공간이므로 주택 및 부엌의 형

<표 4> 주택 및 부엌형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분석

영향요인 시대구분	자연환경요인	정치·경제·기술 환경요인	사회문화적 환경요인	개인 및 가족형태 환경요인
조선시대	<p><u>주남철(1976)</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양성 기후지역</li> </ul> <p><u>오영숙(1977)</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에 다른 기후조건</li> </ul> <p><u>윤장섭(1979)</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에 따른 기후조건</li> </ul> <p><u>윤정옥(1981)</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 풍토</li> <li>•건축재료</li> </ul> <p><u>이영주(1986)</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후</li> <li>•지리적 조건</li> </ul> <p><u>강영환(1986)</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에 따른 기후조건</li> </ul> <p><u>이경희(1986)</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에 따른 기후조건</li> </ul> <p><u>김경원(1987)</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에 따른 기후조건</li> <li>•재료 조달 여건</li> </ul>	<p><u>주남철(1976)</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사규제</li> </ul>	<p><u>주남철(1976)</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승유정책(대가족제도, 남여구별)</li> <li>•좌식중심의 기거양식</li> </ul> <p><u>윤장섭(1979)</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계층</li> </ul> <p><u>주남철(1980)</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계층</li> </ul> <p><u>윤정옥(1981)</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교사상</li> <li>•풍수음양사상</li> </ul> <p><u>유희옥(1984)</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음양오행설</li> <li>•풍수지리설</li> <li>•자연합일사상</li> <li>•유교사상</li> </ul> <p><u>이영주(1986)</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교사상</li> <li>•신분제도</li> <li>•풍수사상</li> </ul> <p><u>김경원(1987)</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생활관습</li> <li>•신분</li> </ul>	
개화기			<p><u>김선우(1979)</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화사상의 유입</li> <li>•개항을 통한 외국문화의 도입</li> </ul> <p><u>유희옥(1984)</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합리적, 과학적 실학사상</li> </ul> <p><u>이영주(1986)</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식건축, 서양건축의 도입</li> </ul> <p><u>김선재(1987)</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근대화</li> <li>•외래주택양식</li> <li>•건축생산조직의 변화</li> <li>•주택개량운동</li> </ul> <p><u>정태일(1988)</u></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봉건주의의 붕괴</li> <li>•외래양식의 도입</li> </ul>	

일제시대			<u>유희옥(1984)</u> • 외래문물의 도입 <u>김철호(1984)</u> • 주택수요급증 • 서양문물과의 접촉  <u>정태일(1988)</u> • 도시주택난의 발생 • 조선영단의 설립	
해방후 ~1960년		<u>신수현(1983)</u> • 신재료 및 공법의 도입 <u>장광화(1987)</u> • 시멘트생산 • 건축기술발달	<u>유항윤(1984)</u> • 도시화 <u>정태일(1988)</u> • 6.24사변 이후 재건 주택, 후생주택 건축 등의 복구작업 • 서구문물의 도입 • 아파트 건설	
1960년대	<u>신수현(1983)</u> • 취사, 난방연료의 변화 • 바닥고저차 • 취사, 난방의 분리	<u>이중우(1988)</u> • 정치안정 및 경제개발계획실시	<u>최찬환(1982)</u> • 기거양식	
1970년대 1980년대		<u>유순옥(1988)</u> • 새마을사업 • 영농방식의 과학화	<u>이중우(1988)</u> • 주택난 가중	<u>신영숙(1987)</u> • 핵가족화 • 가족간의 교류증대 • 가사작업에의 가족 참여 경향 • 식침 분리 • 개인실의 독립 • 식사행위의 변화 <u>유옥순(1988)</u> • 부엌만족도 요인 • 생활양식의 서구화  <u>이중우(1988)</u> • 가사노동력의 생활 패턴변화 • 생활합리화 의식고조

태를 요인만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하지 못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가지 다른 주택의 형태에 영향을 주는 모든 환경적 요인을 총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생태학적 접근으로 주거학의 개념을 모델화하려 한다. 또한 주택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4가지 환경으로 분류하여 부엌공간 뿐만 아니라 다른 생활공간 즉 개인생활공간, 사회생활공간, 작업공간 등의 변천도 파악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주택 및 부엌형태에 영향을 미친 요인으로 언급된 모든 요인들을 재구성하여 크게 자연환경요인, 정치·경제·기술환경요인, 사회문화적 환경요인, 개인 및 가족행태환경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면 <표 3>과 같다. 조선시대에는 주택 및 부엌형태에 영향을 미친 환경요인은 주로 자연환경요인과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이었다. 자연환경요인 중에서는 지역에 따른 기후조건이 달라짐으로 해서 나타나는 지역별 평면, 그리고 건축재료 등이 대표적 요인이 있으며, 사회문화적 환경요인 중에서는 유교사상, 신분제도, 풍수사상 등 사상적인 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개화기와 일제시대에는 봉건주의의 붕괴, 실학 사상 및 서양문물과의 접촉으로 인한 외래문화의 도입 등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이 주로 영향을 미쳤다. 해방 후 1960년도까지는 6·25사변 이후의 복구사업 및 외래문물의 도입 등 사회문화적 환경요인과, 시멘트 등의 신재료개발 및 새로운 공법의 도입 등 정치·경제·기술환경요인이 주택 및 부엌형태에 큰 영향을 주었다. 1960년대에는 취사·난방연료의 변화와 취사·난방의 분리, 그리고 경제개발계획의 실시 등이 영향을 끼쳤다. 1970년대와 1980년대로 들어와서는 주택난과 같은 사회문화적 환경요인 이외에 핵가족화, 가족간의 교류증대, 생활합리화 의식고조, 생활양식의 서구화 등 개인 및 가족행태환경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주거학 개념모델

위와 같이 주택 및 부엌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추출하여 크게 4가지 환경요인으로 나누어 주거학 개념모델을 설명함으로써 주택 내 각 생활공간이 제반환경과 상호의존적으로 작용하는 본질을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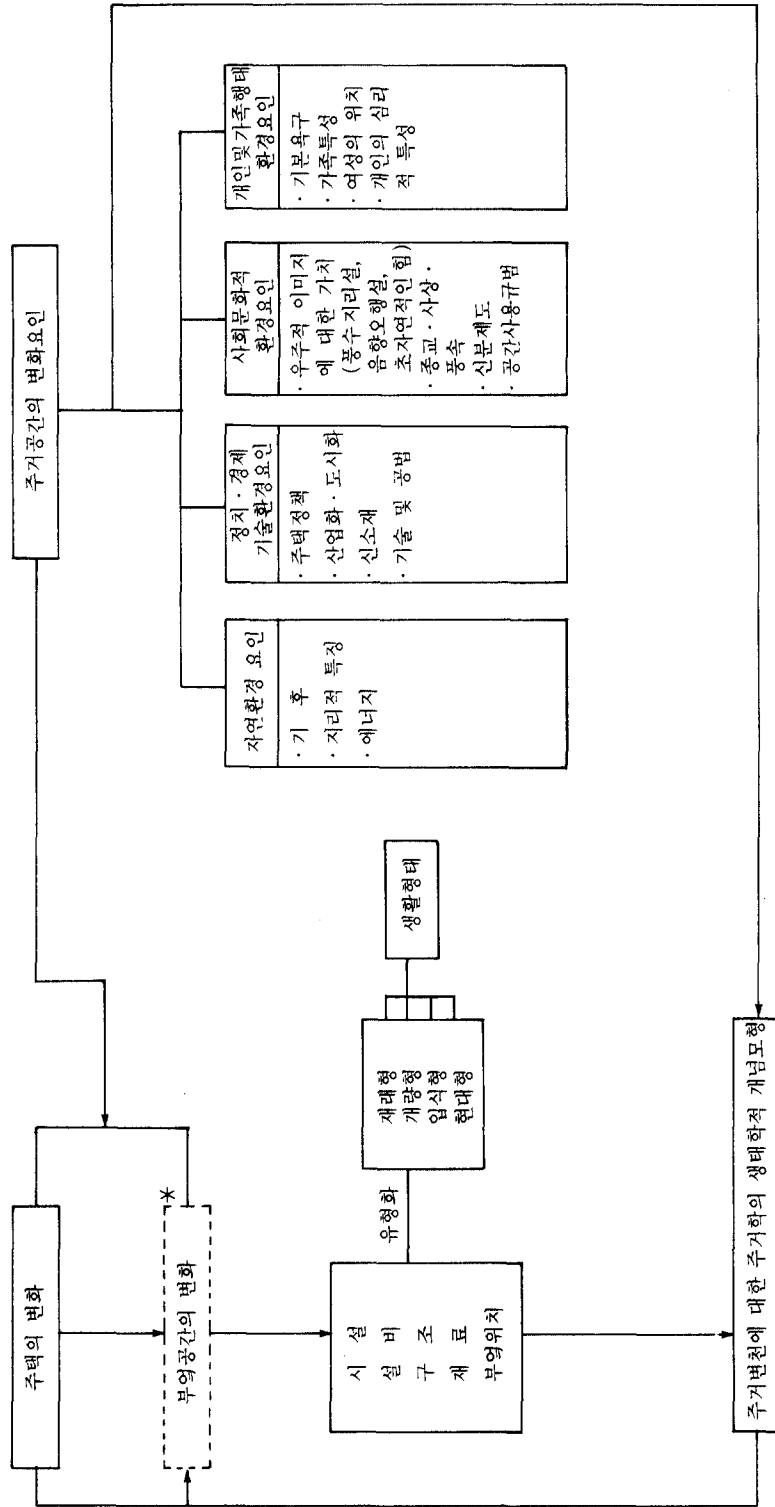
자연환경요인에는 기후, 지리적 특성 및 나무, 석

탄, 석유, 물, 태양 등과 같은 에너지원이 포함되는데, 각 주택이 속한 지역에 따라 기후, 지역, 그리고 사용가능한 건축재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상이한 평면형과 구조를 갖게 되어 이에 따른 주택형태가 생기게 된다.

정치·경제·기술환경요인에는 신재료, 기술 및 공법 뿐만 아니라 주택정책, 산업화, 도시화 등을 들 수 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신재료가 개발되고 건축기술과 공법도 발전하므로 이에 따라 주택시설 및 설비, 구조가 크게 향상된다. 또한 국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해 나가는가는 역시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데, 일례로 조선시대에는 엄격한 신분제도 사회로서 가사규제를 시행했으므로 각 계층이 누릴 수 있는 주택의 기준이 달랐다. 그리고 산업화, 도시화가 진행될수록 인구가 특정지역으로 집중되어 생기는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형태인 아파트가 출현하게 되었다.

사회문화적 환경요인에는 풍수지리설, 음양오행설, 초자연적인 힘 등 우주적 이미지에 대한 가치와 종교, 사상, 그리고 신분제도와 공간사용 규범 등이 포함된다. 조선시대에는 특히 풍수지리설, 음양오행설이 주택의 구조와 배치에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서민들 사이에는 민간신앙도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남녀유별의 내외사상과 조상숭배를 기조로 하는 유교사상도 주택내에서의 공간배치 및 사용규범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개인 및 가족행태환경요인은 기본욕구 및 가족특성, 여성의 위치, 그리고 개인의 심리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기본욕구를 설명한 마슬로우(Maslow 1954)의 이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주택이 생리적인 기본욕구를 충족시키게 되면 좀 더 높은 차원의 욕구인 안정성, 소속성, 존엄성, 자아실현 등으로 충족하고 싶은 욕구가 달라진다(Meeks 1980). 그리고 가족수와 가족구성 등의 가족특성요인은 주택의 변화를 가져오며 여성이 가족내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에 따라라도 달라지게 된다. 전통적인 유교사회에서 현대산업사회로 옮겨옴에 따라 여성의 지위와 역할이 향상되고 다양화하면서 여성전용공간이었던 부엌의 존재의미가 달라지고, 이에 따라 여러가지 발전된 설비가 도입됨으로써 가사노동의 경



\* [ ] 여러생활공간도 포함됨(예, 개인생활공간, 공동생활공간 등)

<도표1> 주거변천에 대한 주거학의 생태학적 개념모형

감과 부엌에서의 가족역할 구분도 변해가고 있다. 또 한 각 개인의 영역성, 밀집감, 프라이버시에 따라서 공간의 사용이 달라지게 되므로 이로 인해 주택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상의 설명을 도식화하면 <도표 1>과 같다.

이 개념을 생태학적 접근으로 다시 <도표 2>와 같이 모형화한다. 이 환경적 요인들 중 개인 및 가족행태환경요인은 미시적 환경요인이며, 사회문화적 환경요인과 정치·경제·기술환경요인 그리고 자연환경요인으로 갈수록 거시적 환경요인이다. 따라서 주택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시적일수록 일차적, 직접적으로 작용하며, 거시적일수록 이차적이며 덜 직접적으로 작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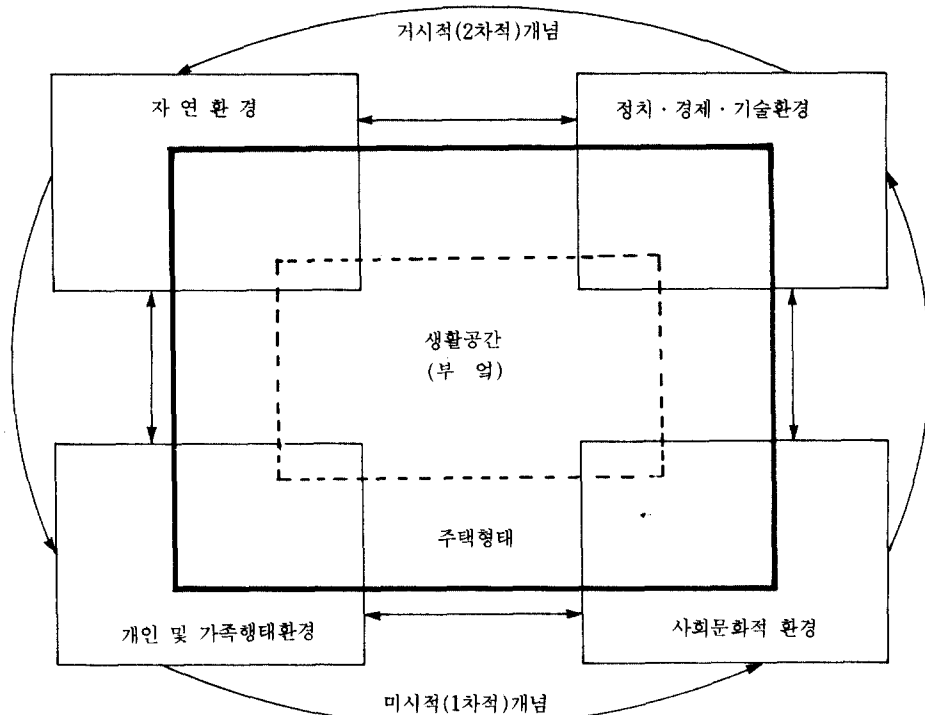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생활공간 중에서도 부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으나 다른 생활공간을 대입하여도 설명이 가능하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린다.

1.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주택과 부엌, 그리고 부엌과 관련된 생활행태의 변천:조선시대의 주택형태는 유교사상의 영향을 많이 받고 하나의 채(棟)를 단위로 분화된 중상류 주택과,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고 채보다는 간(間)의 분화가 더욱 우세한 서민층 주택으로 크게 대별된다. 이 시대의 부엌은 여성의 생활공간인 안방의 바로 아랫쪽에 위치하면서, 타공간과 바닥평면의 고저차 때문에 복잡한 동선과 비능률적인 노동력이 소모되었으며 부엌에서는 취사와 난방이 동시에 행해졌다.

조선후기부터 서서히 붕괴된 신분제도 및 개항과 더불어 주택은 서서히 변화를 겪기 시작하였는데 중



- 사각형이 겹친 부분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다는 것을 의미함.
- ↔: 상호 작용을 의미함.    ·····: 주택내의 여러생활공간

<도표2> 주거생활공간(부엌) 변화에 대한 생태학적 개념모형

상층 주택은 서민층 주택보다 외래문화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았으나 부엌에는 큰 변화없이 부뚜막이 있었으며 취사와 난방은 분리되지 않았다.

1920년부터 일기 시작한 주택개량운동의 기반 위에 주택 및 부엌의 변화가 활발히 전개되었는데, 중상층 주택으로는 식당, 욕실, 변소등의 시설이 내실화된 문화주택과 주택공급업자들이 지은 개량 한옥이 존재하며, 서민층 주택으로는 부엌이 안방후면에 위치한 재래한옥, 영세집합주택인 독신료, 행랑형식의 주택, 소규모 영단주택등이 새로이 출현하였다. 중상층 주택의 부엌은 내실화 및 급배수 설비가 이루어졌으나 서민층의 재래 한옥의 경우는 시설, 구조, 재료에 큰 변화가 없었으며, 부엌은 취사, 조리, 난방의 기능을 담당하였다.

해방후 가치관, 가족관등의 변화, 민주주의, 합리주의등의 보급으로 과거 비합리적이고 봉건적인 가치체계에 의해 특징지어졌던 주택이 합리적인 기능을 도모하게 되었다. 즉 중상층 주택에서는 욕실, 부엌이 내실화되었으며, 서민층 주택인 변형된 재래한옥에서도 부엌과 마루가 연결된 형태가 나타났다. 중상층 부엌은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고 부엌의 입식화가 시도되었으나 재래한옥에서는 부뚜막 및 연탄아궁이가 설치되었고 바닥이 낮게 처리되었으며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지 않았다.

1960년대에는 중앙난방방식의 도입으로 중상층 단독주택과 아파트는 주공간의 내실화 및 부엌의 입식화가 이루어져 DK, LK, LDK형 등이 출현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민층 단독주택은 여전히 재래한옥의 기본특성을 지닌 반면 아파트에서는 입식생활을 지향하는 서구적 공간개념이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각 실의 기능 분화는 아직 미비하여 여름철에는 마루, 대부분은 안방에서 식사행위가 이루어지고 부엌은 식사준비와 식사정리 기능을 주로 담당하였다.

1970년대로 오면서 서민층 단독주택에서도 상당부분 부엌의 입식화가 이루어지고, 서민층 아파트에서도 중앙난방 혹은 개별난방 방식이 도입되면서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어 부엌이 입식화되기에 이르렀다. 중상층 주택의 부엌은 DK형 및 LDK형 등의 급증으로 식침분리가 유도되었으나 서민층 주택의 경우는 안방이나 마루에서 대부분 식사행위가 일어났다.

1980년대에 이르러 신재료, 기술의 도입, 설비의 발달, 주택난등의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주택은 많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특히 중상층 부엌은 입식화가 보편화되면서 부엌가구의 시스템화 및 취사기구의 자동화로 가사노동의 절감효과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DK, LK, LDK형이 확산되면서 식침분리가 보편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부엌의 의미가 단순한 취사공간이 아닌 가족단란 및 접대등을 포함하는 생활공간으로 변화하면서, 부엌공간의 질적인 향상이 기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부엌의 유형화:부엌형태는 부엌의 설비 및 시설, 구조 및 재료, 부엌의 위치등을 분류기준으로 하여 재래형, 개량형, 입식형, 현대형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시대별로는 조선시대부터 1960년까지는 재래형이 대부분이었고 1960년대는 개량형, 1970년대는 입식형, 1980년대는 현대형이 대표적인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에는 이러한 4가지 부엌유형이 시대적인 변화와는 무관하게 공존하고 있다.

3. 주거학 개념의 모델화:주택의 형태와 구성은 단순한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자연환경, 그 시대의 정치·경제·기술환경, 사회문화적 환경, 또 거주자의 개인 및 가족행태 환경등이 상호작용하여 형성된다. 따라서 주거학의 개념은 보다 총체적이며 상호작용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유기체들과 환경들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생태학적 접근방식이 합리적이다. 이에 따른 주거학의 개념모델을 통해서 주택은 4가지 환경, 즉 1차적 개념이면서 미시적 환경인 개인 및 가족행태환경과 사회문화적 환경, 그리고 2차적 개념이면서 거시적 환경인 정치·경제·기술환경과 자연환경의 상호작용적 영향을 받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으며, 주택 뿐 아니라 주택내 모든 생활공간과 제반환경과의 관계도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주거학의 이해를 돕고 주거학의 개념구조를 형성하는 총서저술의 시급성이 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되어야 할 연구를 위한 제언으로는 부엌 뿐 아니라 주택에 대한 유형화작업이 필요하며, 부엌외의 다른 생활공간(사회공간, 개인공간, 욕실공간 등) 변천에 대한 연구와 제시된 주거학 개념모델을 기초로 하여 주거학



총서가 저술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강영환(1989). 한국 전통민가 연구의 동향과 문제. 대한건축학회지, 33(2), 31-35.
- 2) 강영환(1987). 한국 농촌주거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6), 45-56.
- 3) 강영환(1986). 한국 전통민가의 “間”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 29-36.
- 4) 김경원(1987). 한국 전통주택의 내부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5) 김광언(1989). 조선조의 주거풍속. 대한건축학회지, 33(2), 36-39.
- 6) 김란기(1987). 일제의 주거유산과 미 군정기의 주택사정 고찰(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5), 59-67.
- 7) 김란기(1987). 일제의 주거유산과 미 군정기의 주택사정 고찰(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6), 79-88.
- 8) 김동욱(1989). 주택관계의 문헌과 그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33(2), 15-19.
- 9) 김선우(1989). 한국 주거난방의 사적 고찰. 대한건축학회지, 23(90).
- 10) 김선재(1987). 한국 근대 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11) 김순일(1981). 조선후기 주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5(98), 18-22.
- 12) 김순일(1982). 개화기의 주의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6(106), 27-29.
- 13) 김영수(1984). 한국 아파트 건축물의 단위평면 구조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산업대학원.
- 14) 김의원(1989). 개화기에서 구한말까지의 도시발달과정속의 도시와 주택. 대한건축학회지, 33(2), 48-51.
- 15) 김자혜(1982). 주거의 부엌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16) 김정기(1989). 한국주택사 연구의 전망. 대한건축학회지, 33(2), 3-6.
- 17) 김종인(1979). 서민 주공간의 발전적 전개를 위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3(87), 16-24.
- 18) 김철호(1984). 전통주거공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19) 김태현(1986). 70년대 이후 서울시 중산층 단독주택 평면구성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20) 김한중(1987). 집합주택에 있어서 Life-Cycle에 따른 거주자들의 주생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3), 81-92.
- 30) 김혜순(1986). 한국주택 내부공간의 실용적 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31) 김홍식(1986). 18c 말 실학파의 건축사상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30(3), 19-23.
- 32) 김홍준(1988). 농촌주택개선에 따른 주거공간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33) 나승문(1983). 주택의 부엌공간 계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34) 류응교(1974). 주택의 규모면에서 본 농촌주택의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18(56), 31-36.
- 35) 류향운(1984). 한국 중산층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36) 류희옥(1984). 한국 주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신여대 대학원.
- 37) 박경옥(1987). 농촌개량주택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Ⅰ).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3(3), 115-123.
- 38) 박경옥(1988). 농촌개량주택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Ⅱ).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4(1), 179-186.
- 39) 박혜숙(1978). 조립식 부엌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40) 배동석(1989). 한국 아파트 평면의 유형적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41) 서경태(1986). 삼척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 3-13.
- 42) 서경태(1987). 삼척지방의 민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6), 19-24.
- 43) 서종태(1986). 농촌 개량주택의 평면구성에 관

- 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44) 손장열(1986). 우리나라 전통주거의 환경공학적 특성. 대한건축학회지, 30(3), 24-29.
- 45) 손장열, 허정호, 김홍식(1986). 조선시대 전통민가의 온열환경에 관한 측정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4), 177-189.
- 46) 송장복, 전경배(1987). 단독주택주민의 주거의식 및 행태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4), 55-64.
- 47) 송인호(1988). 도시형 전통주거의 평면유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4(1), 61-68.
- 48) 신범식(1982). 아파트의 내부공간과 거주자의 생활행태. 주택, 43, 180-187.
- 49) 신수현(1983). 1945년 이후 서울지방 일반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 50) 신수현, 주남철(1986). 조선시대 말기이후 서울의 일반주택 변천에 관한 연구(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1), 3-8.
- 51) 신영숙(1987). 주거공간사용측면에서 본 상호교류형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52) 안경은, 박선희(1988). 전북 완주군의 민가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4), 105-113.
- 53) 엄인섭(1982). 농촌 개량주택의 공간활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54) 엄인섭(1983). 농촌 개량주택의 공간활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7(113), 10-15.
- 55) 오영숙(1977). 주거의 식생활공간 디자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 56) 유승용(1989). 민가연구의 상황. 대한건축학회지, 33(2), 24-30.
- 57) 유옥순(1988). 한국농가주택의 부엌공간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58) 윤덕호(1984). 주거공간과 식생활공간계획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59) 윤장섭(1979). 한국과 일본의 민가건축 비교고찰. 대한건축학회지, 23(88), 15-21.
- 60) 윤장섭(1972). 한국 원시건축, 낙랑건축 및 고구려건축. 대한건축학회지, 16(48), 28-40.
- 61) 윤정옥(1981). 한국 전통적 주방공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62) 윤일주(1982). 한국 개화기의 양옥건축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6(107), 34-42.
- 63) 이경돈(1982). 전통 민가형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64) 이경희(1986). 자연환경 조절측면에서 본 한국 전통주거의 환경특성. 대한건축학회지, 30(3), 14-18.
- 65) 이경희(1987). 우리나라 주거수준의 실태분석. 대한건축학회지, 31(4), 9-14.
- 66) 이동은(1985). 집근, 분리관계로 본 한국 남부 지방민가.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 71-79.
- 67) 이병욱(1988). 도시주거 주생활공간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68) 이영주(1986). 개화기이후 한국재래주택의 변화요인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69) 이영호(1988). 개화기이후 한국 도시주택의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5), 59-70.
- 70) 이 원(1987). 농촌주택의 주공간과 주생활 상호영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71) 이은경(1989). 도시화되는 농촌지역 주택의 식사취사공간 사용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72) 이재우, 오인욱(1983). 농가주택의 건축공간구성과 부속사 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7(110), 30-37.
- 73) 이정덕(1978). 서울 근교농촌 표준주택설계 및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건축, 22(84), 28-36.
- 74) 이중우, 이해성(1988). 주생활 반응에 의한 주공간 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4(4), 39-48.
- 75) 이중우(1988). 체·용사상에서 본 주거공간의 변

- 용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76) 이홍신(1986). 소규모 아파트 거주자의 공간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77) 임창복(1989). 일제시대 주택건축의 경향고찰. 대한건축학회지, 33(2), 53-57.
- 78) 장광화(1984). 도시 공동주택 단위평면의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79) 장백기(1989). 한옥의 역리적 공간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5(1), 73-81.
- 80) 장성준(1978). 안동 토계동의 주택유형에 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2(81), 3-10.
- 81) 전정윤(1989). 도시주택의 일상적인 주생활행위와 공간사용방식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82) 정인국(1974). 한국 상류주택 서론. 건축사, 4, 10-16.
- 83) 정준현(1984). 단독주택 공간구성 변천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84) 정태일(1988). 도시주거의 공간구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대학원.
- 85) 조성기(1983). 한국 민가에 있어서 북부형과 제주도형의 비교. 대한건축학회지, 27(112), 26-31.
- 86) 조성기(1980). 한국 민가연구 서설. 건축, 24(93), 43-51.
- 87) 조성기, 지호경(1986). 영동지방 민가의 조사연구(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 15-22.
- 88) 조성기, 지호경(1987). 영동지방 민가의 조사연구(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1), 77-83.
- 89) 조성희(1987). 주택유형에 따른 주거공간 사용행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90) 조재순(1978). 농촌 가정생활향상에 따른 주거공간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91) 주남철(1978). 조선시대 주택건축의 공간특성론. 대한건축학회지, 22(80), 17-23.
- 92) 최병숙(1988). 서울근교 농촌주택에 있어서 식사 및 취사공간에 관한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93) 최찬환(1982). 농촌 주택개량에 대한 주민 의식구조에 관한 조사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6(104), 9-16.
- 94) 한필원(1987). 농촌지역 농가주택의 이용패턴 변화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95) 함상우(1986). 아파트거주자의 주거공간 이용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96) Bourne, L.S(1981). The Geography of Housing. V.H. Winston & Sons.
- 97) Deacon, R.E. & F.M. Firebaugh(1988). Family Resource Management. 2nd Ed., Allyn and Bacon, Inc.
- 98) Lindamood, S. & S.D. Hanna(1979). Housing, Society and Consumers. West Publishing Company.
- 99) Meeks, C.B(1980). Housing. Prentice-Hall, Inc.
- 100) Wedin, C.S & L.G. Nygren(1979). Housing Perspectives. Burgess Publishing Company.